

광명문화저널

www.gmcc.or.kr

2007 vol 20

» 지역주민의 문화마당

특집 - 2007년 광명문화학습축제

연속기획 - 도시브랜드와 축제 만들기

기획 - 춤을 추는 청소년

역사기획 - 광명시의 지명고

탐방기 - 광명문화의집 <소리바람/팬오카소리>

만남 - 음악밸리 축제 예술 감독 인터뷰



광명문화저널

www.gmcc.or.kr

2007 vol 20

Cover story



진지하다 : 마음 쓰는 태도나 행동이 참되고 착실하다. 2007년 가을, 우리 모두 매사에 진지한, 참되고 착실한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광명문화저널 제 20 호

발행처 | 광명문화원

발행인 | 안병식

편집인 | 최영주

기획 | 이해진/정은옥/이철우

편집위원 | 양철원 / 김세경 / 허기용 / 최평자

편집디자인 | 그레픽신화

발행일 | 2007. 1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특집 I | I 문화원 사업기획

2007 광명문화학습축제 2 32 지방문화원 연계사업

연속기획 II | I 만남

도시브랜드와 축제 만들기 8 36 음악밸리 축제 예술 감독 인터뷰

특집 II | I 문화정보

너부대축제_동네축제가 희망이다 11 40 추천 공연/전시
추천 음반/도서/비디오

기획 I

춤을 추는 청소년 17

역사기획 I

광명시의 지명고 23

동아리 탐방 I

광명문화의집 <소리바람/팬오카소리> 30

I 시민글마당

44 오리 이원의 수상작/부자들이 함께
하는 거침없는 하루여행/기형도

I 위탁기관 54

I 문화원소개 58



2007 광명문화학습축제
문화학습 축제를 진행하며

다시 보는 2007 광명 문화 · 학습 축제



편집부

→ Let's get the party started!

아직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 2월 무렵, 철망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광명문화원에는 광명문화원과 평생학습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들고 있었다.

2007 광명 문화 · 학습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임의 가장 큰 화두는 '축제란 무엇일까?' 하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근원적인 고민을 시작하였다.

네이버에서는 축제라는 말의 의미를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로 표현하였지만 광명에서 열리는 축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강릉의 단오제처럼 굳이 시민에게 알리지 않아도 단옷날이 되면 그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는 강릉출신 타 지역 노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대관령에 올라 곶을 보고 떡을 나누는 생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 같은 축제가 우리 광명엔 있나 자문해 보았다.

누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 하는, 우리 동네에서 했던,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우리 동네의 이 잔치를 참가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광명 문화 학습 축제가 지역 주민에게 "우리의 잔치"로 기억 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축제이지만 35만 광명 시민의 생활 속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나 고민해 보았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축제가 열릴 것을 기대할 것인가, 또 축제가 열린 후 어떠한 마음으로 축제를 들여다 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축제는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나누는 기회이자, 전통과 현대와 공감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행사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우리의 기본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기본 목표가 세워진 후 우리는 문화도시, 학습도시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광명 지역의 역사 · 문화를 통해 광명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 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통해 광명지역만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 기관, 단체가 함께 만드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채워야 할 것인가 하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



☞ 소통, 나눔 그리고 삶

꿈과 비전을 가진 도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는 도시 광명의 축제를 준비하기엔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되었다. 어떻게 구성해야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나,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문화원의 색깔과 학습원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흥겨운 잔치 마당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3일간의 프로그램이 완성 되었다.

☞ 1일 차

오리 묘소 참배 : 서울로 집중된 중앙형 문화나, 기업들이 주도하는 상업성 문화와는 다른 광명만의 지역 향토 문화를 계승, 보존하기 위한 오리문화제에 대표되는 선양 행사의 일환으로서 광명 지역의 어른인 오리 이원익 선생을 돌아보면서 선생의 청백리와 나라를 사랑하는 올곧은 마음 등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제껏 치러온 오리문화제의 정신을 광명 문화 학습 축제에서도 되새기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개막식 : 2007 광명문화 학습 축제의 개막식은 2006년 시민들의 학습 결과로 꾸며진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연이었다. 평생 학습 도시라는 광명의 brand name에 어울리는 개막 행사였으며 기획 전문 인력과 함께 철저한 업무 분담을 통하여 내실 있도록 기획된 공연이다. 영상을 통해 축제의 주제 의식을 잘 살려 주었으며, 특히 문해 백일장 대상의 영상과 안치환의 공연, 마지막으로 불꽃놀이까지 흥겨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 2일 차

문해 학습 글쓰기 대회 : 문해 학습이라는 평생 학습의 한 부분을 큰 테마로 잡고 글쓰기 대회의 형식을 통해 학습자의 의지와 열의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비 문해 학습자들에게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대회였다.

2일차에 비가 와서 운동장의 많은 인원이 빠진 상태였지만 이 문해 학습 글쓰기 대회장만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 나이는 이미 상관없이 버린 이번 행사에서는 개막식에도 이미 나온 바 있는 작년도 수상자의 영상이 보이면서 감동이 더해져 문해는 단순히 배움이 아닌 생활의 변화이고 삶의 질이 한 차원 향상되는 전인적적인 교육임을 기억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화 학습 한마당 : 광명시 내에 자생하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문화 학습 동아리들의 한마당 이었다. 이번 한마당에서는 작년과 달리 경연대회 형식을 띠면서 한마당 참가를 위한 접수서부터 동아리들의 치열한 혈전이 시작 되었다.



동아리들 간에 서로에게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 위해,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동아리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함이 돋보였던 이번 공연은 급작스러운 우천으로 실내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최선을 다해준 동아리들 덕분에 무난히 치러진 행사라고 할 수 있겠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에 지켜 주셨던 시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느꼈고,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동아리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 즐길 줄 아는 저분들이야말로 광명을 문화의 도시, 학습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구나 라는걸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3일 차

어린이 이원익 선발대회 : 이번 축제 중 어린이가 주축이 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다. 관내 21개교 어린이들이 지역의 인물 오리 이원익 선생과 내 고장 광명에 대해 공부한 것을 뽐내는 자리여서 학교의 이름을 건 치열한 열전의 장이었다.

진행자였던 나도 몰라 찢찢매는 문제였지만 준비를 많이 해온 우리 학생들이 척척 정답을 쓰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났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고장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감으로써 광명을 단순하게 사는 동네만이 아닌 우리 동네 광명, 우리 고향 광명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행사였다.

퀴즈를 푸는 중간 중간 택견 시범과 더불어 퓨전 국악이라는 새로운 공연이 나와 듣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이 함께한 행사여서 다음해 또 다음에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는 행사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 행사였다.

폐막 공연 : <소설 이원익> 을 바탕으로 광명문화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공연이다. 마당 연희극이라는 장르를 광명에 처음 소개시킨 이 공연은 오리 이원익의 생애를 3회의 에피소드에 걸쳐 선보이는 중 1회에 해당하는 이번 공연에는 청백리 정신을 기리는 영상을 시작으로 대감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공직에 나선 초반까지의 삶을 정리한 공연이었으며, 소리와 영상 그리고 퍼포먼스 등이 적절히 조화되어 생동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공연이었고, 내년의 에피소드2가 기대되는 작품이었다.

마지막으로 광명 농악이 함께 한 북의 침공은 과연 이름대로 큰 북이 대거 나와 관람자를 둘러싸고 울림으로써 공명이 마음을 울리고, 또 몸을 울리면서 관객 모두 신명나는 한마당의 일원으로 즐길 수 있는, 하나 되는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 2008년 문화 학습 축제를 기약하며..

이번 축제를 준비, 진행하며 느꼈던 점은 축제는 기획자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대동의 장이 되고, 광명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시민의 한마당임을 깨달았다.

이제껏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먼저 선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그것은 행사를 만드는 것에 아주 일부임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다.

우리의 광명 문화 학습 축제도 위에 언급된 단오제처럼 35만 광명 시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민을 모으는 것에 주력하여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시민의 손으로 시민이 원하는 행사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제의 의미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본다.

문화 학습 축제가 2008년 2009년 지속되면서 우리 뒤에 올 다음 세대, 다음에 광명에 사는 세대도 즐겨 찾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 문화학습 한마당

박정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오디션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시민 문화학습 한마당 축제에 함께 할 수 있었다. 문화원 기타교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선을 봤다.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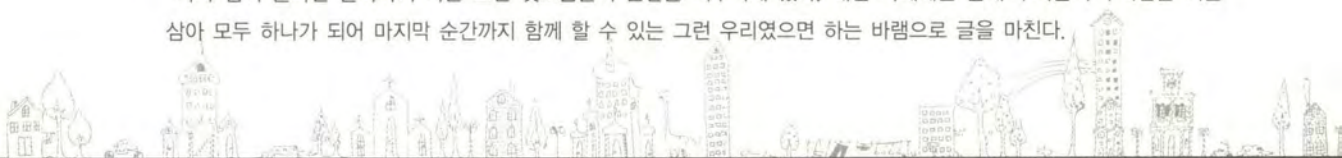
설레는 마음으로 축제준비를 했다. 행사 날 아침부터 날씨가 좋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갔다. 역시나 날씨가 흐리고 조금씩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준비된 부스에서 기타를 치며 기다리는 시간을 즐겼다.

광명 실내 체육관 넓은 운동장에 공연을 위해 만든 큰 무대, 크고 작은 악기들, 단체, 동아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체험 부스 행사, 먹거리 장터... 이곳 저곳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실무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미소가 더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점점 비가 더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 사람들은 점점 줄고 우리는 실내 무대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열심히 배운 실력들을 맘껏 발휘했다. 아쉬웠다면 한 팀 한 팀 공연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줄었다.

각자 팀이 끝나면 돌아가기 바쁜 그런 뒷모습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내년 축제에는 올해 우리들의 부족함을 거울 삼아 모두 하나가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광명문화저널





2 0 0 7 광 명 문 화 축 제





광명문화원과 앞서가는 지역문화

최영주 |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1. 서

중앙집중형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역은 저마다 도시의 네임벨류(Name value)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시설 등이 집중되고, 대도시를 벗어난 변두리 중소도시의 소득 및 문화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었다.

지역 문화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저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겨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화가 우리 삶의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되고 문화산업의 부가가치가 유무형의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각 도시마다 앞을 다투어 축제들을 기획하고 지방 정부는 문화 사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전국에 약 2000여개의 축제가 생겨났고, 성공한 축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름 없이 스러져간 축제들도 또한 많다.

2. 지방문화원, 그리고 광명문화원

지방문화원은 그동안 지역의 향토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에서부터 각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추진하고 있었다.

시대의 문화적 흐름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번져가면서 각 지역의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에도 많은 변화를 겪는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이라면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보다는 지역의 전통적, 역사적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방도시의 문화적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원의 변화는 어쩌면 필연이었다. 문화원의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이 젊은 사람들로 대거 교체되고, 젊은 피를 수혈 받은 지방문화원은 의욕적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젊은 기획이 돋보이는 사업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광명문화원은 이미 15년 전부터 지역문화의 디딤돌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하여, 지방의 중소도시가 이제 막 문화의 가치에 눈뜨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젊은 피를 수혈 받고 있었으며 보다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이미 일하고 있었다.

지역축제의 전형을 만들어 보고자 기획되었던 <오리문화제>가 14년 동안 지속되었고, 15년차에 광명시 평생학습원과 결합하여, '교육과 문화 두바퀴로 가는 광명'이라는 주제로 2006광명문화·학습축제가 개최되고, 올해 두 번째 문화·학습축제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항상 지역문화창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광명문화원은 수많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기획하여 16년 동안 지역축제로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오리문화제>였다.

요즘 영어마을이 전국 각지에 생겨나고 있는데 이미 12년 전부터 어린이 영어연극이 기획되어 매년 정기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중앙일간지나 되어야 가능했던 <어린이신문>을 광명문화원에서는 이미 12년 전부터 어린이가 직접 기자단을 만들어 취재, 편집하여 매월 신문을 발간하였다. 문화원 내 창조학교를 만들어 창조적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하고, 문화학교를 통해 시민, 청소년, 아동들에게 실질적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였으며,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어린이 중심축제인 <어린이문화장터>가 어린이 신문사 창단과 함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가 중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1가정1악기 운동도 이미 4년 전부터 기획되어 '생활속의음악도시광명만들기 1인1악기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정착과 함께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다.

3. 광명문화원 그리고 ...

이제 시대가 또다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자! 이제 광명문화원은 또 무엇으로 앞서가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시도는 현대적 문화콘텐츠 개발이다.

지방문화원의 중요한 목적사업은 향토사 조사, 발굴, 보급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현 시대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문화자산을 개발하고, 그것이 현대적인 문화코드로 재해석되어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로 개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앞서 말한 문화산업적 차원의 접근과 함께 효과적으로 도시의 네임벨류 획득에도 기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된 현대적 문화콘텐츠는 광명시의 오리지널리티를 획득하여야 하고 광명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2007광명문화·학습축제 폐막식 구성이 위의 현대적 문화콘텐츠 개발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유명연예인에 의한 구성보다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광명시의 자량인 시민문화동아리만의 힘만으로 축제의 처음과 마지막을 만들었다.

평생학습원의 그동안의 성과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개막식의 구성이 그렇고, 광명문화원의 15년간의 오리문화제의 성과가 깊이 우러나는 폐막식의 구성이 그렇다.





오리 이원익대감의 자체 제작 시나리오와 새롭게 창작된 음악, 새롭게 창작된 무용이 함께 결합한 “오리 이원익 문화콘텐츠 <정미년 바람과 함께>”, 타악그룹 광명과 농악보존회가 만들어 낸 “북소리의 침공”은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만난 현대적 문화콘텐츠 개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마지막 대동놀이인 “북소리의 침공”은 소하동부터 시작하여 광명7동까지 광명시내 18개 주민자치센터의 풍물 동아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폐막식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을 가운데 두고 어둠 저편에서에서 약 200~300여개의 북으로 공격한다는 콘셉트로 진행하였고, 그 중앙에 타악그룹 광명이 북소리를 선도하였다. 약50여개의 깃발과 함께 어우러진 대동놀이를 통해 북소리에 간혀 있던 시민들은 북소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민족적 정서에 깊이 선양되어, 전통문화가 현대문화로 만들어져 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였다.

이런 기획은 그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정열을 바쳐 일해 왔던 광명문화원과 농악보존회 광명시평생학습원의 일꾼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32만여 인구에 150여개를 육박하는 문화동아리의 숫자가 그것을 증명한다.

4. 맺으며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지역문화의 디딤돌로 굳건히 광명의 문화를 지켜내는 문화원으로 두 다리를 깊이 땅에 묻었다.

광명시에는 정말 많은 문화적 움직임들이 있다. 어쩌면 이미 넘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까이 다가서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다.

그러나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세요,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가는 희망이 되십시오”라고.

다가서지 않으면 문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화가 중요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실감했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해결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나는 한다.

이것이 지금 나의 딜레마이다.

기획 - 동네 축제가 희망이다!

너브대 문화 축제

이웃들의 삶의 향기 가득했던 너브대의 6월 그 현장 속으로...

너브대의 자연.

"하루에 한번 하늘보기"가 내 하루에 목표가 된 것이 오래전인데 그건 메마른 내 감성 회복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은밀한 내면에는 옛 어르신들 말씀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턱 밑과 목이 자극을 받아 예뻐진다'라는 속설에 근거하기도 한다. 물론 후자에 기대를 거는 건 사실이지만... 하하.

변명 같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정말 하늘 한번 보기 힘들다. 그래도 요즘 같아선 사무실 창 밖으로 바라 본 너브대의 짙은 녹음은 날이 선 내 맘을 단번에 순한 양으로 만들어 버린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광명문화의집이 광명5동 오씨종산(너브대 공원) 자락에 등지를 뜬 것도 언 9년 세월이 흘렀다. 과거의 일을 지금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다보면 꽤나 흥미진진해 꼭 전설(?)만 같다.

그렇게 우리 문화의집도 이웃들과 하루하루 살 부비며 지내왔을 세월이 내겐 참 가슴 벅차다.



Festival

너브대 그리고 축제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질 때쯤 함께 해야 할 이유들이 생겨나고 더불어 '힘'이라는게 생기게 되어 있다. 어쩌면 너브대 문화축제는 운명처럼 온 것 같다. 아니 오랫동안 준비된 자들에게만 오는 뜻밖의 선물 같은 것 일수도...

정확히 그날을 기억한다. 이천삼년 시월, 바람 불던 그날 광명서초등학교에서 제1회 너브대 문화축제를 알렸다.

토요일 오후, 쿵쿵 올려대는 음악소리에 삼삼오오 모여든 주민들의 표정은 낯선 듯, 흥미로운 듯 제각기였다.



웃지 못 할 일도 많았다. 우리들의 계획은 개막 선언 후 음악과 함께 축제의 축하를 위해 초대된 내빈들이 터트릴 박의 줄을 잡고 당기면 박이 팍~ 터지며 바람에 꽃가루가 풍풍 날리는 상상, 이렇게 멋진 시작을 기대했지만 우리가 밤새 만들었던 대형 박 한쪽이 그 만 터지지 않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폭소를 우리는 진땀을 빼기도 했다.

또 그날 바람은 어찌나 불던지... 펼쳐 놓은 천막들이 바람에 둥둥 떠다녀 천막 다리 잡는다고 꿈쩍달싹 못 했던 일도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첫 회를 치르고 일년을 쉬 다음해인 2005년 10월 너브대 공원에서 제2회 너브대 문화축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축제는 조금씩 진화하며 더 깊이 깊이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만들어 지고 있다.



얼마 전 (6월 2일) 진행된 제4회 '너브대 문화축제'는 이제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고 즐기는 지역문화 축제- 도심의 마을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광명문화의집과 광명5동주민자치위원회가 긴밀하게 결합하여 공동으로 주관하고 광명5동 주민들과 광명문화의집이 함께 모여 자발적으로 펼친 너브대 문화 축제는 약 6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한바탕 난장을 벌였다.



우리 축제는 기왕의 축제들이 대규모의 행사로 치러지면서 천편일률적이고 반복적 행사로 일관해 주민들을 축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왔던데 비해 광명문화의집이 축제 전반을 기획, 진행하고 광명5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광명5동 사무소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주체로 참여하여 문화적인 마을 공동체를 이뤄낸 독특한 마을 축제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좀더 생생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작은 동네, 큰 이웃 만들기'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전시마당으로 광명동의 역사, 광명5동 이야기, 너브대의 유래, 목감천 이야기 등 광명5동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내용의 전시와 광명문화의집과 문화교육센터 및 광명5동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상을 알리는 전시가 축제가 벌어지는 너브대 공원 입구에 진행되었다.

전시 활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해 알고 서로를 이해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기획되어졌는데 너브대의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는 주민들의 표정이 신기하다는 듯 새로운 표정이었다.

체험마당이 펼쳐져 있는 길목에서는 광명문화의집 동아리팀인 공공미술팀의 너브대 공원의 생태를 작은 나무판에 그려 넣는 '우리 마을 내손으로 바뀌어요!'가 진행되었고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 나비가 앉았어요!', 서예동아리의 '우리집 가훈 써주기', 광명5동 주민자치센터의 '또물또물 아이클레이', 광명청소년문화의집 '해냄'의 '희망의 유리병 만들기',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의 홍보관 등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Festival

참여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한가득이었다.

우리들만의 축제장을 통해 멀리 가지 않고 가깝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의 마음에 들었나보다.

또한 오전 11시부터는 광명5동 주민자치센터의 풍물팀과 주민자치위원, 축제추진위원, 광명5동의 통장들이 모여 각종 캐릭터 탈을 쓰거나 분장을 하여 가장행렬을 만들고 길놀이를 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을 한바퀴를 돌아오고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주요 내빈 및 광명5동 주민들이 함께 모여 제4회 너브대 문화축제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이어 너브대 예술무대에서 벌어진 개막공연 '동아리 한마음'에서는 광명문화의집 동아리인 오카리나 동아리 '소리바람', 비보이동아리 '무명', 창작한국무용 동아리 '꼬마 황진이' 발레동아리 '꼬마발레리나', 광명자치센터 스포츠 댄스팀 '너브대 댄스랑',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어린이 풍물단', 소하고 댄스동아리 '걸즈힙합 댄스 고스탑', 광명중학교의 밴드팀이 나와 주민들의 열려한 환호를 받았다.



계속해서 이어진 '열린 참여마당'에서는 광명5동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광명5동 주민열전'이 약 400여명의 주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뜨겁게 펼쳐졌다. '맥주 빨리 마시고 풍선 터트리기', '코믹 디스코 왕 선발대회', '홀라홀라~ 림보게임' '넌센스 퀴즈' 등 다채로운 게임이 주민들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또한 인근 광명서초등학교와 연계해 진행한 너브대 사생대회가 오후 2시부터 진행 되어 학교 수업을 마치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백여명의 학생들로 축제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Festival

축제의 후반부인 오후 5시부터 예술무대에서는 광명문화의집 주부연극동아리 '시선'의 워크숍 공연과 '오투'의 '너브대 여름 맞이 핫~! 콘서트'로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너브대 문화축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하나 된 마을 축제 만들기'로 광명5동 주민들의 마을 축제로 자리 잡고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화공동체를 일궈내어 문화적 주민자치의 영역을 조심스럽게 엮어나가는 모범적 사례로 기획 진행되어질 것이다.

불볕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축제의 주인의 모습으로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브대의 하늘과 땅은 어찌 이리도 싱그러운지...



DANCE DANCE



춤을 추는 청소년,



영식(가명)이의 성장이야기

윤 철 | 광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1989

년 6월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태어난 영식(가명)은 지금 현재 만 18세로 2남 1녀의 장남이다. 화물트럭운전을 하시는 아버지는 요즘 경제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한다. 8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고 몇 년 후 재혼을 한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친구는 중학교 시절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가정환경으로 방황도 많이 하고 반항심도 많아져 가출도 몇 번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에게는 믿음직하고 장한 아들로, 6학년인 여동생과 막동이인 5살 남동생에게는 모범적인 오빠, 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것저것 도전해 보는 도전 성향이 강하고 한번 선택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승부근성 또한 강한 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반면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는 하지 못하는 어린 면도 함께 갖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해 항상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한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독립심과 반항심이 강한 시기로 청소년기 초기에는 완전히 탈중심화(decentering)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나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며 다른 사람이 청중이라고 생각하는 <상상속의 청중>에 파묻혀 지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신감과 활력 그리고 가능성 등으로 상징되는데 영식은 가장 예민한 중학교 시절, 축구에 매료되어 축구를 열심히 했지만 잘 지도해 주시던 형 같은 코치가 전군을 가고 난후 축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생활을 했었다고 말한다.

그러던 어느날 TV에서 힙합이라는 춤을 보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연합고사를 치르고 난 중 3쯤으로 기억된다고 한다. 지금은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무대에서 힙합을 정열적으로 추는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서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영식은 자신이 방황하는 시절에 정열을 다할 수 있었던 축구와 춤이 없었다면 자신은 분명 나쁜 길로 빠졌을 것이라고 활짝 웃으며 말한다.

Dance DANCE



영식이의 고민

영식에게는 최근에
고민이 두 가지가 있다.

HipHop

첫째,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한 후 사귀게 되었지만, 여자친구의 변심으로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다. 여자친구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직 어린마음에 좋아하는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그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자신과 친한 친구라는 점 때문에 그 친구를 보게 되면 피하게 되어 어색한 분위기가 속상하다고 한다.

둘째,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에 놓인 영식은 오디션에 합격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우정 때문에 막상 다른 팀에 입단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우왕좌왕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시기로 가정보다는 학교나 사회에서 자기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행동기준에 동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자기 또래의 아이들로부터 소외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가능한 한 그 집단에 소속되어 같이 수용되고자 노력하는 시기이므로 함께 춤을 즐기고 생활해 왔던 친구들과의 괴리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Hip

이 친구는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신체적 성장은 발달하였지만 Piaget이 말하는 인지발달 제 4단계인 형식적 조작기 즉, 주어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해결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인지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못하여 인생의 결정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이전 '아동'으로서가 아니라 '성인'으로서 일생동안 살아 가야 할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격발달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우정, 그리고 직업선택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청소년기는 성인기와 노년기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일생을 하루의 생활에 비유해 볼 때 해 뜨는 새벽이 정오의 따가운 햇살이 서편으로 기우는 어스름한 황혼보다 더 미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식은 조금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소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청소년이다.

Hop



어느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검사,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자료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한 결과 90% 정도의 고교생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를 갖고 있고 그 가운데 장애문제와 학습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ipHop

ipHop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열정이라는 단어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지, 또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사람의 지표와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영식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고민을 해본다. 우선 기성세대들의 작지만 큰 관심과 격려, 기본적인 신뢰감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주고 사회성 발달에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껴안고자 노력하는 기성세대가 이 사회에 두텁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Dancee

광명시의 地名考 (지명고)

〈광명시 지명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광명시는 고종 32년(1895) 시흥군에 속하였다가 1914. 3. 1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시흥군 서면이 되었으며, 1979. 5. 1 소하읍으로 1981. 7. 1 광명시로 승격하여 鐵山(철산), 下安(하안), 所下(소하), 日直(일직), 老溫寺(노온사), 光明(광명), 駕鶴(가학)의 7개 법정동과 18개 행정동으로 편제되었다.

◎ 앞으로 광명시의 새로운 주소체계와 도로명은 어떻게 바뀌나?

2011년 12월 31일이 되면 현주소 체계는 없어지고 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전화되어 전국의 도로명 주소를 Net-work로 연결 one-stop 안내서비스 체계가 구축됩니다.

광명시는 새주소 제도 실행을 앞두고 어떠한 일을 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시는 2003. 5. 26 지명위원을 소집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백재현	시장
부위원장	구정희	전 경기도 위원
위원	성동수	향토사학자
위원	최문락	소하2동 자문위원장
위원	최홍규	경기대 사학과 교수
위원	박호진	경기도 위원
위원	정부자	광명 사회복지 관장
위원	양철원	광명시 국사편찬 위원
간사	원재석	문화공보 담당관
서기	신영숙	문화담당
지점담당	박보선	지적과

심의안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 부여 산업관련 도로구간별 도로명 제정

심의주문

구획된 도로구간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좋은 뜻이 담긴 도로명 제정을 위한 도로명(길) 공모와 각 동별(구간별) 「주민자치 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총 586개 구간(소로 578, 골목길 8)에 대하여 도로명 제정(심의) 주간선도로 5개, 보조간선도로 22개도 참고한다.

2002. 3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 광명시 전역 : 38.5km
- 총사업비 : 894백만원(국비 100만원, 시비 794백만원)
- 사업량 : 도로구간 613개 건물 13,938동을

성안하여 심의를 완료하였다.



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박보선 담당관을 비롯한 실무요원들의 노고에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이용 안내하여 새주소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주소에 대한 정보와 문의는 광명시청 지적과(02-2680-2153)로 문의 하십시오.

이 보다 앞서 2003. 3. 24 광명시 지명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경부고속철도 및 서울도시 철도 역명 조정”이 심의 안건이었다.

1. 심의주문

- 경부고속철도 역명중 광명시에 소재한 "남서울"역명을 "광명"역으로
-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광명"역을 "광명사거리"역, "철산"역을 "철산(광명시청)"역으로 개명(병기)

2. 제안사유

- 경부고속철도 역사중 광명시에 소재한 역명이 가칭 "남서울" 역으로 가칭 명명되어 역사 이용 국민의 혼란과 지방자치 단체명과 어우러진 고유명사화에 행정 불신의 소지가 다분함으로 개명을 추진코자 함.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7호선의 역명중 "광명"역과 "철산"역은 행정기관 소재지와 이용객의 편리성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광명"역은 "광명사거리"역으로 "철산"역은 "철산(광명시청)"역으로 개명과 병기사용이 요구되어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경부고속철도 >

- 역사의 소재지가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하여 역사건립에 따른 행정 행위 및 절차를 경기도와 광명시에서 이행하고 있음에도 고속철도 기본계획상의 "남서울"역으로 확정하는 사례는 모든 절차와 순리를 위배하는 상식 밖의 역명 제정임.
- 각종 지명위원회에서의 명칭 제정시 영구시설물에 대한 고유명사화 및 명칭에 대한 분쟁 해소를 위하여 가급적 행정소재지 및 역사유적·관광자원 등의 지명도를 고려하여 명칭제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사례를 볼 때 "남서울"역명의 확정에 그 논리가 미비하므로 개명이 절실히 요구됨.
- 광명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고속도로(경부선, 서해안선 등) 진입 톨게이트의 명칭이 "서서울"로 확정·운영중에 있음에도 동일 선상(약7km거리)에 위치한 고속철도 역명이 "남서울"역으로 확정된다면 시설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명칭의 혼란 야기 및 역명 제정에 대한 행정 불신이 유발 됨.



< 서울도시철도 >

- 지하철 "광명"역은 광명사거리에 위치하고, "철산"역은 광명시청 앞에 위치하여 많은 이용시민이 행정소재지와 동명인 광명 사거리에서 역방향인 "철산"역으로 도보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재 이동하는 등 시민불편 초래.
- "광명"역과 "철산"역의 명칭 확정시 상호 협의하여 확정은 하였으나, 광명시 도시발전 진행속도 및 주변 여건 변화로 고유명사로서의 재검 요구되므로 개명 및 병기사용이 절실하게 요구됨.

-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고속철도 역명이 "광명"역으로 확정시 광명시내에 동명의 철도역사가 존치하므로 이용시민들의 불편해소차원 및 적절한 고유명사 사용을 추진키 위하여 개명·병기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임.

4. 심의 결과

이상의 심의 안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관계처에 건의되어 광명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2003. 11. 30. 광명-대구 구간의 시승을 마치고 2004. 4. 1 개통되어 대한민국의 고속철도화 시대가 개막되었다.

제 2기 지명위원명단

직위	직위(직업)	성명	위원 임기	비고
부위원장	전 경기도의원	구정희	2007.1.10~2010.1.9	재위촉
위원	향토사학자	성동수		재위촉
	소하2동 동정자문 위원	최문락		재위촉
	양지면 노인회장	이예중		신규위촉
	성폭력 상담소장	평효숙		신규위촉
	전 시위원	최종선		신규위촉
	전 경기도의원	구정희		재위촉



필자가 태어난 곳은 시흥군 서면 가학리의 공세동이다. 가학리는 법정동명이고 공세동은 자연부락 단위 명칭이다. 동네이름마다 지명의 유래와 전래되어온 이야기들이 많은 것처럼 공세동의 지명에도 역사성을 가진 유래가 있다.

조선 명조대에 군자감정(軍資監正-正三品堂上官)을 지낸 성몽규(成夢奎)가 살면서 군자감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와 공물과 세금을 받아들이고 출납을 하였던 곳이라 "공세동"이라 하였고 "공석"은 "공세"라는 한자에서 변이되어 불렸고 이곳은 조선시대 시흥군 남면의 창고가 있었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이 창고는 남면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세금으로 낸 미곡을 쌓아두던 곳이다. 창고의 건립과 소멸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자료가 없지만 1914년 남면(가학동과 광명동지역)과 서면(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지역)을 서면으로 합하면서 서면 면사무소와 함께 소하동에 존치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당시 창고가 있었던 자리는 뒤골과 이 마을 사이에 있는 천산고개 마루 부근(지금의 779~8)에 있었다고 한다.

공석골은 조선시대에는 뒤골과 함께 유등리(柳等里)로 불렸는데, 이는 마을 동쪽에 문화류씨(文化柳氏) 선현묘가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한다.

문화류씨가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은 조선중기로 "문화류씨 족보"에 따르면 광해군의 장인인 류자신의 고손 류성귀(1620-1671 성균관 진사)의 묘를 쓴 후 그 후손들이 이 묘 아래 집성하여 살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창녕성씨가 집성을 이루게 되었는데 창녕성씨는 인근지역까지 크게 번성하여 시흥 성씨라고도 불리었다.

조선중기 생원 종사장 성춘영(成春英)이 낙향하여 세거지를 정하고 460여 년간 크게 번성하여 명종대 군자감정을 지낸 성문규와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시흥농민운동을 주도한 성우(1842-1921)승지 돈녕부도정을 지낸 성하경(1823-1899)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가학동에는 많은 자연부락들이 있다.

가학동은 도덕산과 구름산 그리고 서독산의 영서(嶺西)에 위치 함이며, 도고산에서 내려오는 도고천(道高川)을 따라 도고내가 있고 지금은 폐광이 된 아연광에는 줄기 내에 솔안 마을이 있으며, 서독산 아래 소각장 입구에 뒷골이 있는데 후곡(後谷) 둔곡으로도 표기되어 있기도 한다. 천산(千山, 天山)고개를 경계로 하여 옛지명 유등리 지금은 공세동(貢稅洞)이 있고, 큰 산 아래에 가자골에 제법미도 주거 집단이 형성 되어가고 있다. 선사시대의 유적지인 고인돌(支石墓)이 있는 벌말은 평촌(坪村)이라 부르고, 터골(基谷)은 안터골(內基谷), 외기곡(外基谷)이라고 부른다.



지금 노리실이라 부르는 마을은 원래 노루실(獐谷里-노루가 많던 고장)이라 표기 되어왔으며, 장터마을(場基村)은 이조말기까지 서해안을 통해 왕래가 잦아 장(場)이 섰던 곳으로 법고개-자경리를 거쳐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곳이다.

옛 지명과 지명(地名)의 유래(由來)를 음미하면서 내가 성장하여 온 고향의 산천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이러한 기록을 후세에 전하고 남기는 것도 고향의 사랑이노라.

광명의 환경과 역사는

고구려, 신라, 이씨조선을 거치면서 잉벌노현(仍代奴縣), 곡(穀壤), 울진군(栗津郡), 금주(衿州), 과천(果川), 금과(衿果), 양(衿陽), 금천(衿川), 시흥(始興) 등으로 많은 변천을 갖어 왔다.

고종(高宗) 32년(1895) 기전읍지(畿甸邑誌)와 광무3년(1899) 시흥읍지에는 방리(坊里)가 남면(南面) 서면으로 표기되고,

남 면(南面)	서 면(西面)
광화대리(廣火大里)	안 현 리(安峴里)
광 명 리(光明里)	가리대리(加里大里)
아 방 리(阿方里)	울 일 리(栗日里)
노온사리(老溫寺里)	자 경 리(自京里)
유 등 리(柳等里)	소 하 리(所下里)
가학동리(駕鶴洞里)	일 직 리(一直里)
	철 산 리(鐵山里)
	하 평 리(下坪里)
	사 성 리(巳省里)

1911. 5. 1. 조선총독부관보의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와 1914. 3. 1 조선총독부행정구역 통폐합 때는 아래와 같이 편제 되었다.

조선지지자료 (1911. 5. 1)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 (1914. 3. 1)
서면(西面)	시흥군 서면
일직리(日直里)	일직리(日直里)
자경리(自京里)	
소하리(所下里)	소하리(所下里)
가리대리(加里大里)	
철산리(鐵山里)	철산리(鐵山里)
사성리(巳省里)	
울일리(栗日里)	하안리(下安里)
하안리(下安里)	박달리(博達里)
노온곡리(老溫谷里)	
가학동(駕鶴洞)	가학리(駕鶴里)
유등리(柳等里)	
노온사리(老溫寺里)	노온사리(老溫寺里)
아방리(阿方里)	
광화대리(廣火大里)	
광명리(光明里)	광명리(光明里)

광명시의 근대(1800~1900~2000)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도표로 표시하여 보았다.

광명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삶에 쫓겨 앞뒤, 좌우를 살필 겨를이 없다하더라도 내가자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과 사고를 지니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1927년 서면 보통학교가 개교되면서 광명시에도 근대화의 신학문교육이 펼쳐지게 되고, 근대교육의 출발점이 전개되었다. 서면 보통학교가 개교되면서 부임한 일본인 교장 기타야마(北山若二)와 혼도 성만용(成萬鏞)이 아동들의 향토교육을 위해 편찬한 "서면향토지"(西面鄉土誌) 1932년 편찬편(광명문화창간호기고)을 보면 총 호구(戶口)가 1,115호 인구는 5,981명 면(面)예산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이 10,315원(円)이다. 지금의 광명시의 시세와 견주어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소중한 자료들이 향토발전을 위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의 광명시의 지명유래나 역사의 변천사들이 이러한 자료(史料)나 자료 또는 참고문헌들에 근거하고 근인하여 지역지고 전해져 오고 전해져 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발전하여 가는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향토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광명시 지명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광명지역의 행정을 뒷받침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향토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기여하고 있는가를 시민 여러분께 알리는 글로서 마감 합니다.

2007. 7.

광명시 지명위원 성동수 씀

바람결에 은은히 들리는 오카리나 소리~

광명문화의집 오카리나 동아리 “소리바람”

바람의 소리를 닮았다고 하는 악기 오카리나! 오카리나 소리가 좋아서 오카리나 하나로 뭉친 광명문화의집의 오카리나 동아리 “소리바람”팀을 만나러 가벼운 발걸음을 떴다. 찾아간 시간이 한참 연습이 진행 중이었던 시간이라 연습삼매경에 빠진 회원 분들을 방해할 수 없어 한참 동안 연습광경을 지켜보았다. 연습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수업분위기보다 진지하고 회원들의 눈이 반짝여보였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인동아리의 대부분이 주부들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직장인 남성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소리바람 팀은 2005년 생활 속의 음악도시 광명 만들기 “1인1악기 연주하기 강좌”의 1기 수강생들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햇수로 3년째인 이 동아리는 현재는 동아리로 전환되어 처음 시작하는 분들과 2년 동안 배워 오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면서 팀을 이끌어 오고 있다. 자체동아리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백성희 선생님과 동아리팀장님을 중심으로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다.

사람들을 오카리나라는 악기로 끌어들이는 오카리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소리바람팀은 입을 모아 오카리나에 대하여 칭찬하기 바빴다. 그중에서도 오카리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다른 악기에 비하여 처음 배우기가 쉽고, 휴대도 쉬워, 오카리나와 함께하면서 삶이 즐거워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다보니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진다는 즐거움에 10년은 삶이 짧아진 듯하다고…….



지금은 광명문화의집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광명문화의집 사랑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소리바람팀은 광명문화의집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마실가자”와 너무대축제 등에 행사에 참여하며 공연경험을 넓히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주요행사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공연봉사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 시간이 좀 누적되어야 하겠지만, 자체역량을 키워 단독콘서트를 진행하여 본다는지 다른 1인 1악기 팀과 연계하여 연주회에도 참여하는 등 더 먼 미래에는 해외공연도 차후에 하고 싶다고 한다.

연습으로 오카리나 소리가 깊어질수록 더불어 마음의 깊이도 깊어지고 있는 소리바람 동아리 회원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바람 팀의 마음을 울리는 오카리나 소리가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소하2동 팬플룻, 오카리나 동아리

팬오카소리!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 철산동이나 광명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멀게만 느껴지는 소하2동 주민자치센터의 '팬오카소리' 동아리를 만나러 갔다. 다른 주민자치센터 보다 넓고 쾌적해 보이는 소하2동 주민자치센터 팬플룻, 오카리나 동아리 "광명 팬오카소리" 팀! 그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들어보자!!

Q 오카리나에 비하여 팬플룻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팬플룻은 어떤 악기 인가요?

A 팬파이프라고도 불리는 팬플룻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목관악기라고도 하죠. 길이와 구멍의 크기가 다른 대나무를 차례로 연결시켜 한쪽 구멍을 코르크로 막아 코르크의 높낮이로 음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루마니아 형과 페루형이 있는데 루마니아형은 대체로 상급자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페루형은 초급자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팬플룻은 오카리나에 비해 처음 배우기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불면 불수록 예쁜 소리에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Q 다른 1인1악기동아리들이 한가지악기에 집중하는데 비하여 팬오카소리팀은 오카리나와 팬플룻을 같이 배우고 있다는데 어떤 계기로 두 악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A 다른 1인1악기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광명의 1인1악기운동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카리나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점차 팬플룻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악기를 같이 하게 되었지요.

Q 내가 정말 실력이 좀 늘었구나하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A 잘 모르다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볼 때면 아..... 나도 처음에는 저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제 조금은 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집에서 연습하면 시끄러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법 멋있다고 인정도 해주고, 그럴 때 뿌듯하죠.

Q 팬오카소리 동아리의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A 강의가 끝난 후에는 따로 모임이나 식사도 함께하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있어요. 의왕에도 팬오카소리팀이 있는데 의왕팀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역에 봉사활동이나 지역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요. ^^

팬오카소리팀에 대한 아주 짧은 인터뷰였지만 조금이나마 팬플룻, 그리고 활동하시는 동아리 회원분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007 광명문화원지방문화원연계사업

■ 개 요 ■

- 명 칭 : 지방문화원연계사업 ○ 주 최 : 광명시 ○ 주 관 : 광명문화원
- 내 용 : (1) 문화원 문화사업 연계 (2) 광명 문화자산 발굴사업의 모델 찾기
(3)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사업추진방향

1. 문화원역량강화
지방문화원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을 통한 문화원 교류를 통해 각 문화원의 업무추진능력을 강화시킨다.
2. 부족한 광명 문화 콘텐츠의 보완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한계가 있는 문화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해 타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광명시민의 문화체험을 강화시킨다.
3. 광명 문화 콘텐츠의 개방
타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문화원에 광명의 문화 콘텐츠를 개방함으로써 얻어지는 홍보효과와 질적 향상을 꾀한다.
4. 광명의 문화자산 발굴사업
타 문화원의 문화자산을 돌아보며 광명의 문화자산 발굴사업에 대한 활동모델을 얻는다.

사업운영계획

1. 시범운영
광명문화원/춘천문화원(춘천의병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과거로의 무한도전! 항일의병마을체험" 진행.
2. "과거로의 무한도전! 항일의병마을체험"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40명
 - 장 소 : 춘천의병마을
 - 일 시 : 2007년 7월28일 ~ 7월29일
 - 내 용 : 의병유적지 관람 및 의병이야기 의병체험
 전통염색체험
 목판인쇄체험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일정

- 7월 1주차 : 프로그램 기획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차량 섭외
- 7월 2주차 : 보조인력 구성
 사전 답사(춘천의병마을)
 보조인력 구성
- 7월 3주차 : 참가자 접수 및 확정
- 7월 4주차 : 프로그램 준비물품 구입
 사전 프로그램 진행
 본 프로그램(항일의병캠프) 진행

항일의병마을체험 인력 배치

구분	업무내용
최영주	총괄진행
이혜진	버스섭외, 인력배치, 보험가입, 큐씨트 제작, 사전답사 진행, 사전프로그램 강사 섭외
정현화	홍보물 제작,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진행
정은옥	명찰, 구급약 등 답사 준비물 준비, 참가자 접수
보조인력 1인	참가자 접수 정리, 프로그램 진행시 참가자 이동 케어
레크레이션 강사	사전프로그램 진행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현식이 왜 그날은 갑자기 아파서 여러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는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현식은 아픈 것만 빼고는 무척 재미있었다 하더라고요. 햇볕을 들고 다니던 의병 고난체험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또한 건강했던 누나 유나는 너무나무 죄송하대요. 적은 체험료를 내고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니까, 너무 미안해하더라고요. 체험학습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번 체험학습은 정말 재밌었나봐요. 집에 와서 쉴 새 없이 재잘거리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뗏목타기, 한밤중의 계입, 천연염색, 의병체험에서는 깃발을 들고 다니느라 무거웠다면서요?

식사도 정말 잘 나와서 잘 먹었습니다. 수련원의 전통한옥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번 체험학습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하더라고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하였더니 그래야 하겠다더니 시간이 가 버렸네요. 늦게나마 엄마가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신 여러 선생님들과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여러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세요.

-캠프에 참여한 자녀의 학부모-



평생교육사 실습생으로 한 달여간을 문화원과 함께하면서 같이한 프로그램이 향일의병체험 “과거로의 무한도전”이다. 아직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처음 진행하기에 간과한 부분들도 많았고, 내 나름 만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40여명의 아이들과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안전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다. 버스를 타고 출발했을 때부터, 아이들을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기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지나고 나니 내 걱정이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체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진행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인원들의 노력이 들어간다. 1박 2일의 작은 체험프로그램 하나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을 끝낸 뒤에 반성점이 생기는 것을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조직하고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 실습생 송원수 -

향일의병캠프라는 프로그램은 지방문화원연계사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향일의병캠프는 독립된 프로그램으로서, 초등학교 4-6학년 40여명과 함께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진행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방문화원과의 연계를 통해 타 지역의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문화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했다. 지방문화원의 입장에서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대규모 광역급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의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방문화원연계사업을 통해 단순히 각 지역문화원과의 업무 조인 수준을 벗어나, 지역문화원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타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단순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콘텐츠도 개방함으로써 지역적으로 홍보가 부족해 침체되어있는 지방문화원단위의 문화 사업들을 보다 활기차게 할 수 있다.





시범사업평가 및 향후추진방향

2007년 8월 28일(토)~29일(일) 양일간 이루어진 항일의 병체험 프로그램은 지방문화원연계사업의 일환으로서 처음 이루어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다. 시간과 여건이 가능했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항일의병캠프를 마친 후 문화원에서는 몇 가지 반성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문화원 연계라는 일차적 목적을 뒤로하고, 캠프 자체에 대한 목적이 너무 강해졌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지방문화원 연계사업의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원간의 상호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프로그램 속에는 시민들을 위한 많은 경험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문화원 직원들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던 순간이다.

둘째, 타 지역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광명문화원의 대표프로그램을 정착시켜 타 지역의 문화원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지방문화원 일 수록 좁은 지역의 인구, 경제, 문화 등의 한계로 인하여

좋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지 못하여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인접 문화원들과 공유한다면, 광명의 문화 콘텐츠들을 타 지역에 알리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지방문화원간의 공동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화원 연계에 있어서 일차적인 수준에서는 서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단순한 관계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방문화원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더욱 많은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융화시킴으로써 양 지역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경험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광명문화원의 지방문화원 연계사업은 이제 첫 발을 내 댔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나오고 있지만, 진행하면서 얻은 많은 반성점들은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올해 나온 반성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07 광명음악밸리축제 예술감독

최수일 감독

**광명 음악밸리 축제
예술 감독을 만나다.**

“

광명의 음악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음악축제로 자

리잡아가고 있는 광명 음악밸리 페스티벌

(<http://mvalley.org/>)이 2007년 10월 5일(금) ~

10월 7일(일) 까지 열리게 된다. 올해의 음악밸리축

제는 The Classic 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

위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광명 음악밸리 축제의 총

예술 감독인 최수일 감독을 만나 감독 본인과 음악

밸리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



감독 최수일이란?

나는 서울 토박이로 태어났다. 나뿐만 아니라, 3대가 넘게 서울에서 살아온 진짜배기 서울 토박이이다. 서울에서 살면서 많은 방송예술 쪽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 것, 방송국에서 아역배우를 했던 경험 등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만큼 하지 못하셔서,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나에게 이쪽 경험들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다. 특히 5살의 어린 나를 당시 서울예술학교에 보내셨으니 지금의 내가 이쪽에서 일하는 것이 어찌면 이때의 경험이 컸는지도 모른다.

물론 반대도 없었던 건 아니다. 특히 어려서 외삼촌이 PD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님께 나를 평범하게 키우라고 말하셨을 정도로 주변의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창생활은 방송쪽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는 경복고에서 농구부를 했을 정도니, 내가 농구를 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학창 시절 우연히 선물 받은 기타하나가 나를 밴드생활로 이끌기는 했지만.....

학창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밴드생활을 했다.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내 인생은 나에게 커다란 선택을 강요했고, 단돈 50만원을 들고 난 미국으로 가는 선택을 했다. 음악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자 미국으로 갔지만 가진 것이 없었다. 미국에서의 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미국에 있으면서 10가지가 넘는 직업을 가졌었던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연히 찾은 미식축구 팀 경기장에서의 일 때문이다. 당시 시카고경기장에서 경기 후에 모 밴드가 이어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의 틀어짐이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공연연출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당시가 아마 84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쉽지 않은 연출이었으니 그때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운동장에 악기와 스크린, 무대, 음향장비들이 완벽하게 셋팅되어 기차역에 기차가 들어오듯이 들어오는데 그것 자체가 감동이었다. 이때 한국에 돌아가면 취약한 공연환경을 많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SBS에도 있었고, MTV에도 있어봤지만, 아직도 발전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방송이나 공연을 포함하는 모든 문화계에는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콘텐츠를 중요시 하는 토대가 아직 부족하다. 연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팀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100%를 볼 수 있게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최수일의 삶이고, 또한 감독 최수일이다.

■ ■ ■ 최수일이 말하는 광명 음악밸리 페스티벌은? ■ ■ ■

일단 페스티벌은 축제다. 축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축제에는 볼거리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는 등,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공존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축제는 단순히 보고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가, 듣다가, 자신의 취향이 아니면 다른 즐거움들도 시민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 물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음악 축제면 음악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는 말들도 많고, 물론 나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은 한다. 다만 아직은 광명 음악밸리축제가 음악만 가지고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즐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음악을 즐길 때도 자신에게 맞는 노래는 즐기고, 그것이 아닌 시간에는 다른 즐길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객들은 축제를 가볍게 즐기려고 한다. 하지만 기획자들은 축제에 대해 설정한 주제나 컨셉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이 점에서 관객과 기획자들 사이의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은 이 거리감을 줄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2007 광명음악밸리축제는 '대중음악, The Classic' 이라는 주제를 내세운다. 통속적이어서 저렴한 음악이 아니라 통속적이어서 친근하고,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조명할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축제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 ■ ■ 이번 캐스팅의 판단기준은? ■ ■ ■

사실 예술작품을 누군가가 순위 매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예술작품을 순위매김하는 것은 잘나고 못나고를 판단하는 일보다, 어떤 작품이 경향을 잘 따라가는가를 판단하는 일에 가깝다. 때문에 대중의 경향을 잘 따라가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지향해야 할 것은 아니다. 광명음악밸리페스티벌을 기획해 나가면서 캐스팅에 있어서 염두에 둔 점은,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예술성을 대중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것이라고 무작정 선택한 것은 아니다. 기획자로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면서도,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친근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팀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 ■ ■ 음악밸리페스티벌의 목표를 이야기해 본다면? ■ ■ ■

광명음악밸리페스티벌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축제라고 생각한다. 올해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축제를 위한 파급력을 갖춰야 한다. 광명음악밸리페스티벌은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음악허브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아직은 광명음악밸리페스티벌이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 ■ ■

문제는 지역축제이면서 지역축제의 색깔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광명을 대표하는 축제이지만,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명시가 하는 축제가 아니라, 광명에서 하는 축제로 이미지 변화해야한다. 물론 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시의 예산을 사용하다보니 이래저래 신경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특히 시의 재정만으로 축제의 규모를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무래도 다른 투자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광명에서 하는 축제보다는 광명시가 하는 축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단순한 지역축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큰 투자들로 이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음악밸리축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축제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 시, 지역사회, 기업, 기획자 등등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

Cultural Guide

공연+전시

『거창국제연극제』



- > 기 간 : 2006 / 7 / 27 (금) ~ 8 / 15 (수)
- > 장 소 : 거창군 수송대 일원의 야외극장, 거창문화센터
- > 문 의 :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055)943-4152~3
- > 홈페이지 : www.kift.co.kr

경남 거창에서는 오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린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거창국제연극제는 낮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무료 공연을 즐기고 밤에는 연극을 관람하는 공연예술축제. 가장 성공한 여름 공연예술축제로 꼽힌다. 연극제에서는 실험적 성격의 연극과 가극, 마당극, 악극,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가 한데 어우러진다. 독일 인형극단 헬미의 귀신놀이로 초대와 캐나다 인클라인의 카고, 독일 스타피피겐의 사커맨 등 외국 공연들을 비롯해 10개국 50개 단체가 참여해 총 210회의 공연을 펼친다.

이번 여름피서는 거창국제연극제와 함께 문화피서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네 여자의 한 때』



- > 기 간 : 2007 / 8 / 19 (일) ~ 30 (목)
- > 일 시 : 평일 19:30 / 토, 일 16:00, 19:30
- 월요일 공연 없음 / 첫 날 낮 공연 없음 / 30일(목) 낮 공연만 있음
- > 장 르 : 연 극
- > 장 소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 > 출 연 : 신운숙, 윤여영, 이수아, 이민지
- > 관람등급 : 10세 이상
- > 문 의 : 프로젝트 이리 011-9716-8782

<< Drama

... 누구에게나 개별적인 것이긴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시간으로부터 3년 전에 윤숙, 여영, 민지는 은혜의 집에서 같이 산다. 윤숙은 은혜의 대학교 동창이고, 결혼 후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남편에게 일방적인 이혼을 통보 받고 은혜를 찾아온다. 민지는 저녁에만 극단에서 생활하며 은혜의 집에서 방을 얻어 살고 있다. 여영은 한동안 은혜로부터 상담을 받던 환자고 우연히 집에서 같이 살게 된다. 네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 받고 유대를 쌓아가면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향한 돌파구를 긍정적으로 모색해 간다. 그리고 은혜의 죽음을 겪고 나서 이 집을 떠난다. 시간으로부터 현재의 시간 사이에, 그녀들의 회상이 열린다. 그들은 단지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해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간다.

『빛의 화가 모네』

Exhibition <<



- > 기 간 : 2007 / 06 / 06 (수) ~ 2007 / 09 / 26 (수)
-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 > 시 간 : 평일 10:00~22:00 / 토, 일 및 공휴일 10:00~20:00 / 매주 월요일(휴관)
- > 문 의 : 서울시립미술관 02)724-2900

인상주의 미술의 선구자 끌로드 모네의 작품세계를 초기부터 말기까지 시기별 대표작품을 통해 선보이는 국내 첫 회고전!

빛의 시대를 연 모네의 다양한 풍경 작품과 '인상주의의 성서'라 불리는 모네 예술의 진수 <수련> 연작을 통해 근대 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주역인 모네 예술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세요!

『중국 국보전』



- > 기 간 : 2007 / 5 / 23 (수) ~ 2007 / 8 / 26 (일)
-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 >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8시(입장마감 7시)
- > 문 의 : 02)3676-7845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중국의 고대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국보전은 한漢 말엽부터 唐唐까지 중국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서 교류사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온 중국의 국보급유물 325점!

고대 중국의 문화 수용과 발전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은미 스페셜 : 베스트 팝 발라드(CD+DVD)』



> 아티스트 : 이은미
> 장 르 : 발라드
> 음 반 사 : 신나라
> 발 매 일 : 2007 / 6 / 15

Music <<

언제나 파워풀한 에너지와 영혼의 자유인으로 공연장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가슴 깊은 소리를 전하는 맨발의 디바 이은미. 이번엔 그녀가 가요가 아닌 대중에 친숙한 팝송으로 다시 한 번 대중의 영혼에 깊은 소리를 불어넣는다. 이번 발매되는 '이은미 스페셜(CD+DVD)'은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파워풀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소리에 자신의 영혼을 함께 담아내었다. 또한 영상과 함께 이은미의 매력적인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The Greatest Love Of All', 'Saving All My Love for You',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그리고 'You Light Up My Life'를 포함하여 12곡의 주옥같은 음악으로 전하는 '이은미 스페셜(CD+DVD)', 가창력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과 뛰어난 표현력이 듣고 있던 청중을 긴장시켜 숨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던 그녀의 음악을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저 자 : 밀란 쿤데라 / 출 판 사 : 민음사



삶의 무게와 획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외과의사 토마스와 진지한 삶의 자세로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여종업원 출신 테레사,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속박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롭기를 원하는 화가 사비나, 그리고 사비나의 애인인 대학교수 프란츠 등 4명의 남녀를 통해 펼쳐지는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랑이야기가 주된 줄거리이다.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존하는 토마스는 테레사와 사비나를 동시에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토마스와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테레사는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토마스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한다. 한편, 자유분방하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비나는 그 대가로서 조국 체코의 예술과 아버지, 그리고 진지한 애인 프란츠를 배신해야 하는 외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고수한다. 사랑과 성(性),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없이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이들은 오랜 방황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인간의 존재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 Book

Cultural Guide

음반+도서+비디오

Movie <<

『스팽글리쉬(Spanglish)』



감독 _ 제임스 L. 브룩스 / 출연 _ 아담 샌들러, 테이아 레오니
장르 _ 코메디, 드라마 / 등 급 _ 12세 관람가 / 상영시간 : 130분

스팽글리쉬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페인어식 영어를 의미한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플로르와 크리스티나. 두 모녀는 살기위해 미국사회에 적응해 나가야만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와 완전히 다른 미국의 백인문화에 크게 충격을 받는 플로르와 다르게, 크리스티나는 미국의 백인 문화를 빠르게 습득해 나간다. 서로다 다르게 느끼는 문화충격만큼이나, 멀어져 가는 모녀사이의 관계. 이 영화는 무엇을 말하고자 싶은 것일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지배 문화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피지배문화사이에 존재하는 역학관계와 같은 심각함에서부터, 가족 간의 사랑과 같은 일상적인 영화 소재들이 동시에 공존해 있는 영화 스팅글리쉬. 당신의 눈에는 어떤 점이 보일지 스스로 확인해 보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Pay it Forward)』

감독 _ 미미 레더 / 출연 _ 케빈 스페이시, 헬렌 헌트, 할리 조엘 오스먼트
장르 _ 드라마 / 등급 _ 12세 관람가 / 상영시간 _ 122분



사회 선생님인 오이진 시모넷(케빈 스페이시 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로서, 모든 것은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을 수 없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한편, 앨렌스 맥 키니(헬렌 헌트 분)는 혼자서 11살인 아들 트레버(할리 조엘 오스먼트 분)를 키우며 살아가는데, 양육비를 벌기 위하여 라스베가스의 칵테일 종업원 일 등 두 가지 일을 맡아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별로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자신은 알콜중독자이기도 하다. 그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고 싶어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이진은 트레버의 학급에 새로운 숙제를 내는데, 숙제의 테마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무엇이 있으면 고쳐라."이다. 만일 좋아하지 않는 주위의 무엇이 사람이라면? 이제 트레버는 이 숙제를 실천하기 위해 나서고, 상처받은 두 영혼 오이진과 앨렌스는 트레버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발견한다.

어린이 이원의 선발대회 글짓기 시상상 <산문>

작은 시냇물이 이원익 대감을 이야기 하다.

권순혁 | 광명광일초등학교 6학년 4반

부끄러운 나라의 현실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초석 같은 기개가 살아 있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오리 이원익' 대감이십니다. 흘러간 역사가 다시 되돌아와 국란이 휘몰아친다 해도 지금 누워계신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이놈들~" 하시며 카랑카랑한 호령으로 내치실 것만 같습니다.

지금 막 '오리 이원익'에 대한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 화가 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왜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는 때가 많았고, 당파 싸움도 많았고, 간신들도 많을까요? 이 책에서만도 임진왜란, 정묘호란, 당파싸움이 끊이지 않고 나오니 우리의 이원익 정승께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실 날이 있으셨겠습니까? 한심한 벼슬아치나 양반들은 나라와 백성의 어려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세력이나 집안의 가문만 중요하고 거기에 재물만이 전부인줄 알지만 이원의 청승께서는 백성의 참혹함과 시대의 걱정만이 보였으니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몸과 마음의 뜻은 다른 벼슬아치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작게 태어나 병치레도 많았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덕에 남의 불우한 형편도 살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작고 아프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마저 나라의 보약으로 쓸 좋은 밑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일곱 살에 두 번째 과거 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정한 시험 때문에 이원익대감의 급제마저도 취소되었다는 부분을 읽을 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무과시험을 보실 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시험에서 탈락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원익대감께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영웅이나 인제는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 결국은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시니 위인들에게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강하게 하는 보약이나 영양제 인 것 같습니다.

송강 정철과 이율곡, 이순신장군, 그리고 유성룡..... 이분들 역시 우리의 역사에 기억되는 선조들이신데 이런 분들과 한 시대를 함께 하시며 국란을 헤쳐내고 함께



정사를 논하셨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은 봉당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경계하는 당파싸움이 있을 때도 이원익 대감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으시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오로지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며 행동하셨습니다. 심지어 임금님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머뭇거림 없이 지적하고 충언할 줄 아는 용기가 끝없이 샘솟는 샘물 같습니다. 충언역이(忠言逆耳)라는 말이 있는데 충신의 말은 임금님 귀에 거슬린다는 말입니다. 그 무서운 '광해군' 앞에서도 최고의 벼슬자리나 자신의 귀향길에는 연연하지 않고 계속 충언역이(忠言逆耳)를 하시니 이원익 대감의 벼슬길은 영의정과 귀향, 영의정과 낙향, 다시 또 영의정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정을 펼쳐 '종(宗)'이나 '조(祖)'의 호칭을 받지 못하고 끝내 '군(君)'이라는 광해군으로 마감했지만 그런 광해군마저 이원익대감의 충심을 아시니 충언역이(忠言逆耳)만 하는 귀찮은 이원익대감을 차마 다른 신하들처럼 참형을 내리지 못하시고 귀향까지만 보내셨다가 다시 영의정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흐르는 물의 높이는 같습니다. 아무리 넓은 바다라 할지라도 출렁거릴 뿐 그 물의 높이는 같습니다. 다른 건 물의 깊이입니다. 수심 100m, 수심 500m, 하지만 그건 물위에서 보면 모릅니다. 그 속을 들어가 봐야 보이지 않던 물의 깊이가 나오는 겁니다. '오리 이원익' 정승이나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역사의 인물, 아니면 탐관오리나 간신으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된 선조들 역시 걸

으로 보면 살아간 모양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임금님을 모시고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고 함께 임진왜란을 겪은 많은 일들이 이원익 대감과 다를 게 없습니까.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당파싸움이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때,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원익대감의 마음의 깊이는 감히 누구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가는 곳이 머나먼 명나라이건, 임금님을 모신 위험한 피난길이건 또 81세의 고령의 나이이건 상관없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한발 앞서 나서는 분입니다. 요즘의 슈퍼맨도 저리가라 할 정도입니다. 비록 88세의 고령으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최첨단 과학과 인터넷의 편리함에 하루하루가 우리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하고 뒤처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배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오리 이원익' 대감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깨끗한 기상이 아닌가 합니다. 정신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고 과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작은 시냇물이 되어 작은 깊이를 가져 봅니다. 그 시냇물이 모여모여 깊은 바닷물이 되는 날이면 '오리 이원익' 대감의 깊고 넓은 정신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 이원익 선발대회 글짓기 시상상 <시>

초가집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김주화 | 광명광성초등학교 6학년 3반

두 칸짜리 초가에서

무릎만 겨우 펴고

잠이 들면서도

백성들의 얼굴장 같은

잠자리를 걱정하고

다음날 끼니를

걱정하는 이원익

백성들 어머니 마음으로

나라를 난로처럼 데우고

나라를 노을처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부지런한 씨앗처럼 정치를 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당해도
정의의 손을 들어
감옥에서만 지내야 할지도 몰랐던
이순신 장군을 드넓은 바다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준
보이지 않는 군사이다.

모든 백성들을
어머니 마음으로
감싸주었기에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은 이원익을
기억하고 있다.

“세상의 돌도 없는 친구를 이야기 하는 말에는, 수어지교(水魚之交), 문경지교(勿頸之交), 지음(知音)과 같은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두 다리를 잃은 이와 두 눈을 잃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리와 눈이 되서 길을 나아가는 이야기는 어떤 친구 사이보다 더욱 감동적이다.

지금 이곳에는 위의 두 친구 사이보다 더욱 감동적인 부자(父子)들의 여행기가 있다.

2007년 7월 7일 아침,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9가족들이 광명 문화원 앞에 모였다. 아이들은 어느 때와는 다른 설렘 속에서 하루의 여행을 기대하고, 아빠들은 아이들과 함께했던 지난 여행이 언제였나를 회상하며, 오늘 하루의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설레고, 걱정하는 사람은 남편과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일 것이다. 결코 길지 않은 하루의 나들이이지만, 어쩐지 걱정이 되는 마음은 쉽게 숨길수가 없다. 이렇게 쉽지 않게(?) 얻은 어머니들의 휴가는 낯설기만 하다.”

광명 부자(父子)들이 함께한

거침없는 하루 여행

버스는 어느새 우리의 목적지인 상주에 가까워지고, 창밖의 펼쳐지는 푸른 풍경은 부자들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만든다. 여행의 시작부터 기분이 좋다. 어느새 부자(父子)들은 부자(富者)가 되어버렸다. 마음의 넉넉함은 더욱 풍성해지며, 서로를 보는 눈은 흐뭇하게 빛난다. 마을 주민 분들의 따뜻한 환대로 시작한 우리의 여행은 우리를 더욱 힘이 나게 하고, 함께하는 감자 캐기는 어느새 과일양상이다. 손을 대어 뽑기만 하면, 토란 토란한 감자들이 올라오는 모습에, 아버지들도 신이 나고, 아이들도 신이난다. 어느새 들고 가기도 힘들 정도의 감자들을 캐내고, 들지 못하면 등에 지고라도 간다며 웃는 부자(父子)들은 한 아름씩 감자를 안고 돌아간다.

밭에서 일한 뒤에 돌아가는 트럭위에는 시원한 바람이 서로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짧은 노동(?)뒤에 담배한대를 피시는 아버지들을 보며 “담배 안돼요!”라고 외치는 우리아이들의 호통에, 아버지들은 웃으면서 담배를 끈다. 아이들의 웃음은 담배 한 모금을 대신하고도 남는다.



출출한 시장기를 달래기 위해, 작은 바베큐 파티가 열렸다. 아빠들은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구워먹을 감자를 준비한다. 작게 시작한 파티는 어느새, 즐거운 연회장으로 바뀌고, 계속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 속에서 서로가 더욱 가까워짐을 느낀다.

말하고, 소리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별것 아닌 행동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즐거운 음악보다,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입심 좋은 농담보다 더욱 즐거운 것은 눈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하루의 반이 지나고, 어느새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어느새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 하루의 여행이 아쉬워 할 때쯤,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다슬기 잡이가 시작됐다. 시원한 개울가 앞에서 물에 들어가기로 주저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른들뿐이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이들의 날렵함은 어느새 온몸을 물에 담그고 뛰어놀고 있다. 아빠들의 주저함도 행동으로 바뀌고, 서로가 준비한 PET병에는 한 마리, 한 마리씩 다슬기가 늘어간다.

하루를 함께 여행하며, 달려왔던 시간은 어쩐지 오늘도 아쉬움이 가득하다. 두 손에는 감자와, 다슬기가 있지만, 가장 큰 선물은 역시 지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있던 시간이다. 짧은 여행이 끝나가지만, 이내 아쉬운 듯,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아빠들은 말한다.

“이런 시간을 함께 자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아빠가 노력할게~, 그리고 다음에는 엄마도 같이 오자!” 돌아올 무렵이나 생각 난진지,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빠들과 아이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가 생각한다. 그리고 모두 미안해한다. 부자(父子)가 함께해서 즐거웠지만, 역시 가족 중에 한 명이 빠진 여행은 무언가 아쉽다. 그들의 아쉬움을 알고 있었는지, 내리는 버스에서 반겨주는 것은 역시 우리의 어머니들! “잘 다녀왔어?”라고 안부를 묻는 어머니들의 얼굴은 가족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더욱 얼굴빛이 밝아진다.

결코 길지 않은 여행을 함께했던 부자(父子)들의 모습이 출발할 때와는 한층 달라졌음을 느낀다. 오늘의 여행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부자(富者)로 거듭나는 행복한 9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박찬규 (연세대 · 법)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펼쳐볼 것인가

〈오래된 서적〉 中

0. 머뭇거리며

온통 잿빛 투성이인 기형도를 읽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와 같은 깊이의 절망을 인내하며 불친절하지만 고려된 시어들 사이를 누비는 침묵에 대답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다. 아마 그를 펼쳐본 수많은 영혼들은 이 전례 없는 검은 페이지들에 대하여 한 번 쯤은 빠져들고 싶었겠지만 끝까지 정서적 동화를 이룰 수는 없었던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형도 만큼 언어를 다루는 시인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만한 지성이나 감성, 관찰력과 사변력을 가진 시인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 치 유희의 틈임도 허용치 않았던 이 젊은 시인의 현실감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콘크리트처럼 낭만이란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세계에 들어가기에 머뭇거리지는 이유이다.

1. 나무의자 밑에는 버려진

책들이 가득하였다

1960년생인 기형도는 나와 거의 20년 간극이 있다. 지금 나는 기형

도가 극장에서 객사했던 스물아홉이고, 여전히 대학에 있다. 은백양

의 숲이 사라진 교정에는 이젠 버려질 책들도 없고 기관원도 사라지

고, 플라톤도 읽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입 속의 '검은 잎'이 악착같

이 달라붙어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보수가

좋은 공장으로 가고 있다. 학생들은 턱수염이 수북한 마르크스나 레닌의

초상화에 더 이상 익숙하지 않고, 엘리엇 T.S.나 Wordworth의 시를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나 기형도와 동시대의 정서를 공유하기를 강요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물론 그의 시적 소재가 모두 대학시절의 시대적 감성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며, 개별화된 주제에 대한 직관과 사유를

통한 작품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의 작품에 깊게 드리운 불우한 유년기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 가계사(家系

史)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의 정서들과 직관들은 그의 20대에 가다듬어진 이성적인 사고와 표현력에 의해

원초적 고삐들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채, 힘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대학시절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의 관념은 대

학시절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그가 영원히 청년으로 기억되는 이유이다.

2. 예정된 모든 무너짐은 얼마나 질서정연한가.

기형도는 절망으로 내딛는다. 그것은 단순히 7,80년대가 가져다준 사회사의 질곡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과거 경험

에서 형성된 아니마도 아니다. 몇몇 평론가들이 기형도 시의

어두운 정서적 색채를 그의 유년기에서 찾는 데 나는 몹시 못

마땅하다. 시가 그리는 진실의 개별화된 상황에 주목하지 않

고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그의 고

찰과 사변을 무의미하게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권력의 속습

에 대한 것이나 개별화된 인간에 대한 관찰 집단과 개인의 문





제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절망의 근거들. 이러한 보편적인 문제에 치밀하게 씨름하느라 그의 언어는 늘 날카로운 조각도처럼 현실을 깊이 있게 파 들어간다. 그 종착점은 언제나 생에 대한 회의와 인간에 대한 절망에 이른다. 그의 시는 시대적 정황을 구체화하는 80년대 민중시와는 다른 보편적 통찰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더욱 시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현실이 관계 맺는 방식에 주목한다.

3. 추생으로도 태어나지 말라

추모하기엔 아직도 젊은 이 시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김훈이나 황지우나 김현 혹은 장정일같은 이들의 평가는 편향된 것이었을까. 시에 대한 공학적 접근법으로 무리 짓는 수많은 평론들 사이에서 내가 어설픈 직관으로 무엇을 주장한다 한들 말이다. 시인이 시를 제작학으로 만든 것이 아닌, 시인의 삶과

의 일체성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형도 같은

시인이 또 있을까. 극장에서 객사한 비극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의 의식은 시를 위해 존재했

다 할 만큼 모든 비참한 것들을 닦아낼 만큼 낮고

섬세하게 흐르지 않았던가.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공간에 몸과 의식을 비집어 넣는 고통을 아는가. 그의 시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그는 끔찍이도 그곳을 사랑하였고 또 그것에 대하여 발언하였던 것 같다. 추모 글에서 기형도더러 축생으로도 다시 태어나지 말라했던 김훈의 언급이 떠오르는 이유이다.



4. 불편한 매듭

기형도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은 많을 것이다. 나의 단견(短見)들은 어쩌면 그의 시를 읽었던 보편인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만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시와 공감대를 이루는 데 있어 스스로의 관념의 사치와 낭비가 자꾸 거슬리는 것을 느낀다. 이것 역시 기형도를 읽는 이라면 같이 느끼리라 생각한다. 기형도는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가치있게 발견된다. 시가 단지 시적 언어의 조합으로만 읽히지 않는 그 것을. 그런 기괴한 질문들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광명문화의집 간단한 소개 글

광명문화의집은 1999년 2월 개관이후 사람을 중심에 두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건전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 공간 제공, 문화체험활동, 문화정보교육, 동아리 활성화지원, 특강형태의 문화강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밀착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7년 상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었던 2007 제4회 너부대 문화축제 '작은 동네, 큰 이웃 만들기'를 기획하여 광명5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2007공동체예술아카데미 - 공동체 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만남' projec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광명문화의집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정겨운 만남과 나눔이 있고, 삶의 향기가 묻어있는 이야기가 있고, 열정이 배어난 흔적이 있습니다.

기관소개 「광명시청소년종합지원실」

올해로 개관 3년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종합지원실 「푸른정거장」**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출, 흡연, 학교폭력에서부터 자살, 성문제, 절도를 비롯한 유해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기를 일시적으로 경험해 본 청소년에서부터 고수준의 위기 선상에 놓여있는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학교 내 또는 사회적으로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교내 처벌,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교육, 치료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 학습지도 및 진로탐색,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1대1로 지지하고 상담하는 멘토링 결연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정기적으로 권역별 우범지역 및 청소년 밀집현장을 방문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제공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아웃리치 사업 등이 있다.

이처럼 광명시청소년종합지원실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아로 낙인 찍히거나 사회적으로 낙오되지 않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가운데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안내자이자 지지자가 되고자 한다.

똑!똑! 하안문화의집이죠??

2005년 9월 광명문화원과 함께 개관한 **하안문화의집**은 하안2동 철망산 산자락의 자연경관을 뒤로 하고 유리로 지어진 아름다운 문화공간입니다. 소통하는 지역문화, 나누는 공간문화, 체험하는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문화정보를 얻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며 건강한 우리 문화를 직접 만들어 가는 문화창작의 공간이며, 자유로운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문화공동체! 하안문화의집과 함께하세요!!

- ➔ 운영안내 : 화~금요일 10:00~20:00
토~일요일 10:00~18:00
휴관일_월요일, 명절
- ➔ 시설안내 : 열린 도서부스, 인터넷부스, 영상부스, CD부스, 보드게임부스, 유아놀이방
(모든 문화자료는 시설 내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 ➔ 이용안내 : 안내데스크에서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를 거친 후 모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회원가 입은 무료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하안문화의집은 지역 주민들의 증대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아름다운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부모교육, 생활속 또하나의 창작 리폼이야기)
- ➔ 생태_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아빠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뒷동산여행, 생생 자연속으로~)
- ➔ 전통_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어린이 마당극 얼~썩!, ()가득히~)
- ➔ 사회_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마음으로 말걸기)
- ➔ 해설과 체험이 함께하는 미술관/박물관 체험 프로젝트
- ➔ 놀토 프로젝트(해설이 있는 애니메이션 외)
-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밝디밝은 콘서트 및 각 종 지역 축제)

오름 입니다.

뜨거운 햇볕아래 그을린 아이들의 모습과 왁자한 그들의 웃음소리가 온 산하에 번져 나가던 여름도 지나갑니다. 뜨거운 여름만큼, 뜨거운 아이들과 여름을 함께 보낸 광명1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합니다. 광명1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이번 가을에도 어김없이 아이들과 지역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음악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소리울림”, 청소년문화의집이 단순히 시설이용만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매달 넷째주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연”이 진행되며 (9월 - 노래공연, 10월 - 연극, 11월 - 노래공연),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그들의 상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일상에서 즐기자”, 문화로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자원봉사동아리”, 광명1동에 위치한 파란마음놀이터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축제”, 매개자 양성교육이 진행됩니다.

광명1동청소년문화의집 가을나기 이제부터 시~작!



광명문화원은 우리 생활 속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지역주민의 열린 문화마당 '광명문화원' 으로 오십시오.



“본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1992년 4월 개원한 문화단체로
전통문화 계승·보존과 지역 문화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광명문화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회원은 광명시에 거주하며 본원의 설립취지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며 본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으로 이루어집니다.

광명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 지역문화행사 개최
5월 오리문화제 / 10월 어린이 문화장터 등
- 향토사의 조사 및 새로운 문화의 발굴
향토사연구소 / 문화의집
-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및 선양
향토자료발간 및 지역문화인물 발굴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언론 활동
광명문화저널 / 광명어린이신문 발행
-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회교육활동

- 〈여성회 주부노래교실〉
- 〈어르신 문화 도우미〉
- 〈아키모〉
- 〈어린이문화학교〉
- 어린이영어연극단
- 어린이기자교실
- 어린이기자단(광명어린이신문)

광명문화원 회원의 특별한 혜택

1. 광명문화저널 등 각종 간행물 우송
2. 어린이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10% 할인
(가족 중 1인에 한함.)
3. 문화원 보유자료 및 서적 열람
4. 취미 동아리 결성 시 공간 등 편의 제공
5. 오리문화제 등 각종 행사, 자원봉사 등 우선 참여
6. 향토유적답사 등 기행프로그램 우선 초대
7. 회원카드 발급 예정(2007. 2월중)

회원가입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계좌로 연회비 입금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
- 연회비 : 20,000원
- 입금 : 농협 099-01-007127 (예금주:광명문화원)
- 문의 및 접수

광명문화원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산22번지

T) 2618-5800, 898-9700 / F) 898-0900

E-mail) gmcc2004@hanmail.net

광명문화의집) T) 2687-0556, 2680-6156 / F) 2687-0557

청소년문화의집) T) 2680-6163 / F) 2685-6148

| 문화원 임원 |

문화원 임원

원 장	안병식	모범악국 원장
부원장	윤 철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부원장	곽향숙	팍스어학원 원장
부원장	조상욱	조선시대 대표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감 사	장병환	경기매일 사장, 광명농악보존회 회장
감 사	박준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회장
이 사	최태천	모범독서실 원장
이 사	김경표	메가시네마 대표이사
이 사	안성근	금호주택 대표
이 사	민완기	(주)하나물산대표
이 사	김지수	기호운수 대표
이 사	김양주	(주)두레식품 대표
이 사	김미정	메리트 어학원 원장
이 사	최시용	TM솔루션 대표
이 사	표옥정	철산1동 동장
이 사	김학균	농부유황오리 대표
이 사	박은정	광명시의회 의원
이 사	구무환	일지서적 대표
이 사	박영규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회장
이 사	박은익	위스테크놀로지(주)CEO, 광명시 생활체육 협의회 불링협회장
이 사	전동석	경기도의회 의원
이 사	이상수	경기도 약사회 총무이사 광명시 약사회 부회장
이 사	김종학	동부새마을금고 감사, 소하2동 방위 협의회고문·동정자문위원
이 사	이억선	광명농협 전무
이 사	김광기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 고문, 국가 발전 전략연구회 정책 연구위원
이 사	김태철	(주) 극동물산 대표
이 사	김성엽	한국방송공사 국악관현악단 단원
이 사	최동근	광명웨딩프라자 대표
이 사	원종수	광명새마을지회 운영위원 서울빌딩 대표이사
이 사	심중식	광명시의회 의원
이 사	유상기	광명역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광명시 생활체육협의회 고문

고문

이효선 광명시장
김선식 광명시의회 의장
이원영 국회의원 (갑)
전재희 국회의원 (을)

자문위원

박종덕(자문위원장) 태서리사이클링(주) 회장
최문교(부위원장) 광명시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은숙(부위원장) 나나약국 대표
이수남(간사) 대명상사 대표
강석현 서림전자(주) 대표이사
고원철 광명Y.M.C.A 이사장
구춘회 (전) 광명시의회 사무국장
김갑동 동신건업(주) 대표이사
김남웅 (전) 충현고등학교 교장
김휘열 (전) 파보레백화점 이사
김홍중 (전) 광명 교육장
박문영 문영건설(주) 대표이사
박주홍 (주)신성철강 대표이사
서호석 광명농협 조합장
신경태 광명시의정회 고문
안병식 로타리 3690지구 (전)총재
윤영호 미도건축 대표건축사
이강우 새마을운동 광명시 지회장
정영식 (주)아싸 대표이사
조경남 (주)나이기 광명점 대표
조용호 광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춘목 한국예총 광명지부장

| '2006 광명문화원 및 기관직원, 운영위원, 여성회 |

문화원 가족

문화원 사무국

사무국장 최영주

간사 이혜진 간사 정은옥 간사 김민정

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윤철

문화예술교육센터

연구원 손민정

간사 김현수 간사 장세영

광명문화의집

관장 나도은

팀장 정현혜 간사 정희진

하안문화의집

관장 민병은

팀장 권효선 간사 정선희

광명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기획부장 이은경

팀장 임병수 팀장 김미현 간사 백진아

광명시청소년종합지원실

실장 임무자

팀장 안상희 간사 이귀인

운영위원

양철원 / 광명시청 학예사

김세경 / 시정소식지 기자

최평자 / 기형도 기념 사업회

허기용 / 푸른광명 21 사무국장

서두원 / 무대예술가

여성회

고문 최연순, 윤순남

회장 이애영

부회장 나종숙

총무 황인옥

감사 고정옥

노래반장 김춘화

| 광명문화원 회원 |

광명문화원 회원

윤순남

이애영

남궁나영

이길현

권오희

노정이

이혜경

원경수

오영희

이미현

이현규

신연식

김양수

도미정

인재화

엄명주

강경화

최현주

박민정

박혜옥

이성희

김인숙

정정자

임옥자

차귀연

최애주

김귀남

최연순

이영숙

나종숙

고정옥

안병희

조순옥

최철남

신경주

김숙희

강 속

조경미

박영희

이상근

김미순

김현숙

신춘심

심승희

이현희

박옥재

김화순

최은주

이순자

윤덕호

라순자

송명순

서혜민

홍현화

박정애

배연희

김미경

이연순

차성미

황인란

서재만

박영란

위상진

정수현

김희경

하호진

김옥숙

김미영

김명심

조양지

송양미

신선엽

장순영

전윤숙

홍옥자

전윤금

| 광명문화원 회원 |

광명문화원 회원

김정희

최영란

박찬열

김옥연

방춘락

김길자

김현자

이초호

조성오

이은희

김은영

서미화

박미영

이윤자

정경숙

정현혜

강인순

김기영

원은숙

이상린

안정미

이선영

김정의

김수영

임홍자

이호성

안지영

이희정

홍진숙

이훈자

김남경

김옥정

정인자

이상순

박정희

하옥자

송양순

이정은

이경자

배선희

김문주

김미란

배영미

임숙자

박정인

임종숙

조명화

김형숙

김인순

유은희

이정연

조은원

강신옥

이승아

김은향

이종락

서태양

황인옥

한화자

김춘화

허영숙

이순희

윤옥순

박영아

임명숙

최분섭

권호근

박옥녀

김명화

이청자

이기숙

이혜림

이은정

이미화

오수미

김미영

이정옥

남궁춘

이은주



원고모집

광명인의 종합문화정보지 광명 문화저널이 참신하고 다양한 글을 모집합니다.

문화도시 광명의 시민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주저 없이 문화저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이 바로 **문화저널의 주인공**입니다.

대 상 : 광명시민

내 용 : 칼럼, 제언, 수필, 시, 기행문 등 생활 속에서 느끼는 모든 것.

문 의 : 광명문화원 (02-2618-5800)

홈페이지 : <http://www.gmcc.or.kr>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2007 도토리 문화장터”



나눔의 놀이터, 자연의 놀이터!!



2007년 10월 27일 토요일 13:00 ~ 17:00

행사내용 | 어린이벼룩시장, 체험마당, 공연마당, 먹거리마당,
생태체험전 등

장 소 | 광명문화원 앞 운동장 및 야외공연장

주 관 | 광명문화원

후 원 | 광명시, 광명시의회

문 의 | 2618-5800

달아 가세요 광명시

2007

1회 "달아달아 밝은달아" <국악을 통한 음악풍경>

2회 "복숭아와인" <fusion Music>

3회 "재즈의 향기" <standard Jazz>

4회 "Cinema in LOVE" <영화음악을 통한 음악풍경>

5회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송년음악회>

일 시 | 10월~12월 둘째 넷째 토요일 저녁 5시

장 소 | 광명문화원 하안극장

문 의 | 2618-5800 gmcc2004@hanmail.net

예 약 | 홈페이지(www.gmcc.or.kr)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면 30%~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 관 | 광명문화원, 하안문화의집

후 원 | 광명시, 광명시의회